

- 주요 뉴스: 미국 주가, 장중 큰 폭 하락에서 극적 반등. 과매도 인식 확산으로 매수세 강화
 - 미국 1월 마켓 종합 PMI, '20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인력 부족 등이 원인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인플레이션 전망은 매우 불확실
 - 중국 인민은행, 14일물 역레포 금리를 0.1%p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가 목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평가 등이 영향

주가 상승[+0.3%],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그 동안의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 유입 등으로 상승 전환
유로 Stoxx600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 등으로 3.8%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긴축강화 전망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모두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이탈리아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

※ 원/달러 1M NDF환율(1196.7원, -0.4원) 포함, 한국 CDS 상승

		1/24일	1/21일	전일대비			1/24일	1/2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410.1	4,397.9	0.28%	국채 금리 10y	미국	1.77%	1.76%	1bp
	유럽	456.36	474.44	-3.81%		독일	-0.11%	-0.07%	-4bp
	중국	3,524.1	3,522.6	0.04%	CDS 5y	한국	25bp	24bp	1bp
	일본	27,588	27,522	0.24%		중국	50bp	48bp	2bp
	한국	2,792.0	2,834.3	-1.49%	위험 지표	EMBI+	-	415	-
환율	달러지수	95.89	95.64	0.26%		VIX	29.90	28.85	3.64%
	유로화	1.1326	1.1344	-0.16%		WTI유	83.31	85.14	-2.15%
	엔화	113.95	113.68	-0.24%	원자재	구리	445.6	452.4	-1.51%
	위안화	6.3307	6.3387	0.13%		금	1,843.1	1,835.4	0.42%
	원화	1,196.1	1,194.0	-0.1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주가, 장중 큰 폭 하락에서 극적 반등. 과매도 인식 확산으로 매수세 강화

- 1/24일(현지 시각) S&P500 및 나스닥 지수는 장중 큰 폭 하락(-3.99%, -4.89%) 했으나, 이후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각각 0.28%, 0.63% 상승으로 마감. S&P500 지수는 장중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기술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
- 이날 역시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우려 및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 긴장 고조 등이 매도세를 자극. 다만 장 후반에는 증시가 과매도 상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세 강화. JP모건은 기술적 지표 고려 시 지금은 조정장의 마지막 국면일 수 있다고 평가
- 그러나 모건 스탠리의 Lisa Shalett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 연준은 금년 4회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주가의 추가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 그 동안 주가가 비이성적인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지적
- 한편 이번 주 예정된 애플, IBM, 테슬라 등 빅테크의 실적발표도 주가 향방에 영향을 미칠 전망. 그 동안 실적둔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실적을 발표한 65개의 S&P500 기업 가운데 77%가 예상치를 상회하여 전반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은 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월 마켓 종합 PMI, '20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인력 부족 등이 영향

- 해당 지수는 50.8을 기록하며 전월(57.0) 대비 큰 폭 하락. 이번 결과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인력 부족이 원인이며, 수요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 같은 달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는 각각 55, 50.9로 전월(57.7, 57.6) 대비 하락

■ 미국 뉴욕 연은 설문조사, 금년 월간 소비자 지출은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할 전망

- 소비자들은 금년 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4.6%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다만 휴가, 주택수리 등 고비용 지출에는 신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

■ 유로존 1월 마켓 종합 PMI, '21년 2월 이후 최저. 오미크론 확산 등이 원인

- 해당 지수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 활동 부진 등에 기인. 다만 제조업 부문은 오미크론 영향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공급 차질 등이 완화되면서 개선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인플레이션 전망은 매우 불확실

- 홀츠먼 총재는 역내 인플레이션이 ECB의 목표치인 2% 위에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 ECB는 최근 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나타냈지만, 연말에 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프랑스 중앙은행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ECB가 인플레이션의 2%대 유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도이치방크는 역내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ECB가 금년 12월 정도에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중국 인민은행, 14일물 역레포 금리를 0.1%p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가 이유

- 해당 금리의 인하(2.35%→2.25%)를 통해 1500억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며, 이는 춘절 금융시장 안정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 시장에서는 최근 인민은행이 통화완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기에, 이번 결정이 크게 놀랍지는 않다고 진단

■ BNP 파리바,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완화될 전망

- 부동산 관련 정책이 변곡점을 지나면서 해당 부문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부문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고 발표. 또한 당국은 부동산 부문이 현재 위험 국면이 아님을 시장에 알리기를 원한다고 평가

■ 일본 총리, 디플레이션 탈피와 지속 가능한 경제 구축이 중요

- 기시다 총리는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코로나 사태 극복과 재정 건전성의 회복 등이라고 언급. 다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라면 주저함 없이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1년 12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0.15, 11월(0.37), 예상치(-)

■ 주요 경제 이벤트(1/2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1년 11월 FHFA 주택가격지수,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 미국 1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독일 1월 Ifo 경기기대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연준, 주가 급락에도 금리인상 기조 유지할 가능성 - 블룸버그

(Sorry, Stock Traders, the Fed Won't Have Your Back)

- 연초 이후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주요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하지만 연준은 이러한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예정된 FOMC에서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산매입 축소와 3월 금리인상 신호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연준이 증시보다는 고용과 물가안정을 더욱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기 때문.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에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며, 작년 12월에 발생한 소비자물가 상승 및 실업률 하락도 금리인상 여건을 충족

■ 중국 증시 호조, 여타국과 차별화된 통화정책이 긍정적인 요소 - WSJ

(Chinese Stocks Glimps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 중국 주식시장은 통화당국 긴축 조치의 일부 완화 가능성으로, 2022년 들어 미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모습. 1/21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전년 대비 7.7% 하락한 반면 MSCI China 지수는 2.2% 상승
- 중국 정부의 기술부문 규제 지속과 코로나 19 변이 확산은 여전히 증시에 위협 요소.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촉진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향후 통화정책 완화 및 이에 따른 증시 안정이 지속될 전망

■ 미국 연준의 과감한 인플레이션 대책, 정책 신뢰성 제고에 중요 - Financial Times

(Bold policy response needed to restore Fed credibility on inflation)

■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금년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블룸버그

(Hawkish Fed Doesn't Mean Doom for Resilient Emerging Markets)

■ 이탈리아 대선, draghi 당선 시 오히려 경제 회복 전망이 악화 될 소지 - Financial Times

(The Draghi dilemma: Italian presidential election risks turbulenc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